

“7개 지역, 일곱 가지의 일자리 해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공식 출범

- 지역 주도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취업·채용지원서비스 본격 시작
-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업 인력 육성에 협력기로

“같은 직무라도 산업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각 산업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하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000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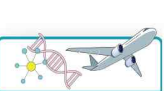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구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구요. (000기업 인사담당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0.(금) 14:0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이하 특화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25.12월 공모를 통해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총 7개 특화센터를 선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선정현황							※ 전국 7개소
 서울 고용복지+센터 청년	 수원 고용복지+센터 반도체	 인천 고용복지+센터 바이오·뿌리·항공	 부산 고용복지+센터 해양	 대구 고용복지+센터 청년	 광주 고용복지+센터 중장년	 전주 고용복지+센터 미래모빌리티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주요내용) ①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②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③해양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에서의 산업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지역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지역·산업 특화센터를 지역의 다른 일자리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만들겠다고 화답하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자리 여건에 맞는 취업·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출범하는 일곱 개 지역의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정부는 이 특화센터들이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 행사 개요
 2.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 선정지역 및 특화대상
 3. 특화센터별 주요 서비스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과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369)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이은상 (044-202-7333) 박형서 (044-202-7341) 곽필순 (044-202-7333)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51-773-5770)
		담당자	사무관	강현희 (051-773-5773)
<운영>	서울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전소영 (02-2004-7075)
	수원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채규덕 (031-231-7916)
	인천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홍수연 (032-460-4832)
	부산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강문영 (051-860-2902)
	대구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권미숙 (053-667-6095)
	광주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박은정 (062-609-8588)
	전주고용복지+센터	담당자	팀 장	김미은 (063-270-9139)

참고 1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6.2.20.(금), 오후 14:00~15:1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 주요 내용: “우리 지역 일자리 뚝뚝 해결사”

-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MOU, ▲특화 고용센터(7개소) 서비스 주요 내용 소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Touch ON’

□ 참 석

- (고용노동부) 장관, 특화센터 운영 청장 및 소장 등
- (유관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부산상의 회장, 부산경총 회장, 부산항만연합회 회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
- (구인·구직자) 고용서비스에 관심있는 구인·구직자 등

□ 세부 일정(모두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1	1'	▶ 개회	사회자
〈1부〉 업무협약			
14:01~14:07	6'	▶ 해양산업 인력수급 지원 등 협약식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장대}
〈2부〉 출범식			
14:07~14:15	8'	▶ 축사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장대} 부산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 ^{장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4:15~14:30	15'	▶ 특화서비스 지원계획 발표	7개 센터(각 2분)
14:30~14:55	25'	▶ 구인·구직자 의견청취: “현장이 지역 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듣는다”	구인·구직자, 장관
14:55~15:05	10'	▶ 일루미네이션: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ON	전체
15:05~15:10	5'	▶ 기념촬영	전체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참고 3

특화 고용센터별 주요 서비스

특화센터	주요서비스
부산	< 해양산업: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 1,400명 지원 > · 무역물류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 과정 신설 등 직업훈련 확대 · 일경험, 현직자멘토링, 기업현장 체험 등 실무 중심 채용지원 서비스 · 항만연관산업, 관광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요에 기반한 채용지원
서울	< 청년 원하는 서비스 + 필요한 서비스 맞춤 지원, 장기미취업 청년 1,000명 지원 > · ▲구직의욕 低: 심리·회복지원, ▲경력 전환: 직무탐색 프로그램, · ▲준비된 청년: 실전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청년 입사 선호기업 100개소 발굴 → 고용여건 향상 지원, 채용연계 강화
광주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도약지원, 패키지 수료자 500명 배출 > · 4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전환, 재취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 특화교육' 신설 · 특화교육 이수자가 융·복합 가전분야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노동자와 기업에 지원금 지원
인천	< 3대 주력산업: 주력산업 특화 서비스, 취업자수 1,900명('25년 대비 +12.4%) > ↳ ①제약·바이오, ②뿌리, ③항공·물류 · (제약·바이오) 직무 체험 주간 운영, 직무·채용 설명회 집중 개최, 기업별 진입루트 안내 등 → 역량있는 인재 발굴 · (뿌리) 우량기업 브랜드북 제작 등 기업 홍보, 기업설명회,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기업의 인식 개선 · (항공·물류) 항공정비, 물류 IT 전문가 등 선호직무 일자리 발굴
수원	< 반도체 S-S(suwon semiconductor) JUMP UP 프로젝트, '25년 대비 취업자 수 +10% > · (협력 UP) 반도체 업종 유관기관 MOU 등을 통한 광역 인재 발굴체계 구축 · (채용 UP) '반도체 광역일자리 수요데이', '경기도 반도체 맞춤 채용 박람회' 등 관련 채용행사 신설·확대 · (기업 UP) 지원금 연계, 잡아바 홍보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기업 고용여건 향상, 인식 재고
대구	< 청년 청년취업 하이패스 3단계 프로젝트, 청년취업자수 3,000명(3년 평균 대비 +10%) > · 준비중 청년에 다가가 자신감회복·취업역량 강화·일경험 제공을 통한 빠른 취업전략 추진 · 1단계: 면접 집중 컨설팅 → 2단계: 밀착 취업지원 → 3단계: 일경험을 통한 미래모빌리티·바이오·의료헬스·디지털콘텐츠 등 지역 성장산업 취업 연계
전주	< 미래모빌리티: 전북미래산업, 사람을 잇다, 청년취업자 1만명('25년 대비 +3%) > ·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①기업·구직자 일자리 수요 분석+②괜찮은 일자리 발굴·성장지원 → ③맞춤형 훈련·채용지원 → ④지원성과 피드백 ↳ 취업과 정착, 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